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 연구

고 정 민 ·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first study of designing Practical Korean Costume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nd taste

Koh Jeong Min · Chea Keum Seo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9. 2. 22 접수)

Abstract

Korean Costume has long history and functional aesthetic value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ostume of other contries. But nowadays Korean Costume is becoming more and more distant from the people in the world wide current.

To domiciliate and spread out the Practical Korean Costume which the government selected as CI symbol representing Korean culture in the trend of times. We investigated and analysed systemically the consciousness of customers and the details of design.

This study consist of theoritical study and positive study. Theoritical study has the esthetic characteristics(structure characteristic, formative characteristic and the characteristic of color).

As the conciousness of people change in modern life which everything change in high speed the 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Costume have changed in structure.

Key words: The esthetic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ostume, The Conciousness and taste of the Practical Korean Costume, Presentation of the Practical Korean Costume; 전통한복의 미적특성(미적가치, 조형적, 색채적),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구조, 생활한복 디자인개발

I. 서 론

우리나라 전통복식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2천년을 이어오면서 어느 나라의 민속복보다 깊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서구화의 물결 속에 전통복식에 관한 관심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층에게는 매우 생소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80년대 이후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하여,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것은 진부하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으로 그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96년 3월, 21세기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우리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상물선정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CI(Cultural Identity)상징물로서 가장 지지를 받은 것이 전통복식이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복식 입는 날' 제정을 통해 우리웃입기 캠페인을 벌여 의식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근원적으로 전통복식을 우리문화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생활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란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기반하여 다문화와 발전적인 공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변화된 기호와 수요에 따른 디자인개발을 통해 전통복식의 현대성을 높혀 보다 대중적으로 그 인지도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옛부터 전해져 내려 온 변형되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한 의복형태¹⁾ '전통한복', 재래의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개량하여 제작한 것을 '개량한복(改良韓服)²⁾, 전통한복에 근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개발해 낸 형태의 의복을 '생활한복'이라고 정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전통한복의 미적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인의 전통한복에 대한 의식구조와 요구사항의 변화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며, 둘째, 디자인세부사항에 관한 선호도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호 디자인경향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심미성, 기능성, 활동성을 고려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면서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한복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생활한복의 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위해 이론적 고찰과 이를 토대로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을 남·여로 나누어 3벌씩 제작하여 작

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통한복의 미적 특성

전통한복은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인 형태상의 변화와 함께 한민족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미적특성을 미적가치, 조형적 특성, 색채적 특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미적가치

복식미의 바탕이 되는 미의식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경험의 축적속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따라서 풍토와 역사, 사회집단 속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민족은 개인적인 미의식의 공통성 곧 동일 취향성을 형성한다. 농경 촌락 공동체를 취락과 생활의 근본으로 삼았던 우리 한국인은 이 동심동체의 동질화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 동질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집단취사(集團炊事)와 동포(同袍)의 개념이 이용되었다. '동포'란 한 옷을 서로가 같이 입는 그런 인간을 의미하는데, '동포(同袍)'가 '동포(同胞)'란 말로 발전했듯이 한국인에게 주술적이고 의식적인 의미가 있다³⁾. 우리의 전통복은 생활환경에 의해 서양복과의 구성상, 정서상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구성방식, 재단방식, 착용방식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전통복은 구성방식에 있어 항상 체형보다 여유를 두어 구성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이며, 바지의 허리둘레나 밑위길이는 여유분이 많아 약간의 체형이나 연령차이에도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 치마의 평면성은 또한 착용자의 체형조건에 그다지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양복과 달리 동일성이 깃들여져 있다. 의복의 결속양식도 그 여유와 여분을 위해 그 같은 형태를 갖게 된 것인데 이는 체형에 따라 자유자재로 맵 수 있게 되어 있다. 트임의 경우에도 활동에 필요한 여유분을 트임으로 처리함으로써 몸의 움직임을 한층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복은 육체에 가장

1) 김윤희·김민자, "인체의 추상형/사실형 개념에 따른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연구", 복식 41호, p. 12, 1998.

2) 이인자·이태욱, "한복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p. 177, 1993.

3)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조선일보사, p. 249, 1994.

구속력을 적게 주는 옷으로서 허리, 발, 팔, 목 등의 굴절부분과 옷과의 마찰을 가장 극소화한 인체분위의 구조로 되어 있다⁴⁾.

둘째, 재단방식에 있어서는 평면적 재단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좌식생활의 환경으로 인해 인체에 최대의 자유로움을 주도록 여유있게 재단되는 전통복의 특성은 인체의 굴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면재단에서 그 미적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착용방식에 나타나는 전통복의 특성은 한국적 문화개념의 싸는(包)문화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싸다는 것은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동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식주 전반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식(食)문화에 있어 보쌈, 찜밥, 보쌈김치, 구절판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 싸서 먹는 식습관이 존재하며, 주(住)문화 역시 북부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ㄷ자형의 주거형태에서 싸는 듯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싸는 문화가 의생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치마인데, 치마의 감침새, 끈 하체에 감돌리는 그 매무새에서 우리나라는 은근한 미가 바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며 동시에 정신적인 의상이었다. 개체(個體)로서의 독립과 개인으로의 이탈에 가치를 두고 원심(遠心)적인 서양인의 가치관이 그들 치마에 나타나 있는데 반하여 일체로의 포용(包容)과 사람으로의 접합에 가치를 두는 구심(求心)적인 한국인의 가치관이 우리 치마에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복식미의 측면에서 서양복과 우리 전통복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서양복식에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으로 보아 복식에 있어서 인체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합일로 보아 복식에서 자연과 융화를 중시하므로 복식에서 인체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2. 조형적 특성

여유를 두어 재단하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전통

복은 그 특유의 부피감을 갖는다. 저고리와 치마·바지를 중심으로 형태미, 균형미, 비례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미에 있어서 저고리의 경우 끈은 안깃과 겹깃이 사선으로 V자형을 이루며 앞쪽으로 내려와 곡선으로 모아짐으로서 단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고름은 몸체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영향에 따라 생동감있는 울동미를 보여 준다. 치마는 착장법에 따라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치마의 부피감은 한층 강화되어 향아리형(melon silhouette)의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상은 바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바지는 행전이나 대님을 착용함으로써 풍성한 폭이 움직일 때마다 변화되어, 생명력있는 선의 울동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둘째, 균형미에 있어 구조적으로 대칭이지만 저고리의 쏘, 고름 등과 같은 옷의 각 부분과 착장법에 있어서는 비대칭 균형이 많다. 특히 남자복 보다 여자의 저고리 상하·좌우의 비대칭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비대칭 균형은 미적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대칭균형에 비해 보다 세련되고 변화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하·좌우의 비대칭은 저고리의 깃, 고름, 동정, 쏘, 끝동, 겹마기 등에 다양한 선이나 배색효과로서 그 무게감을 더해 주어 단순한 치마와 균형을 이룬다⁵⁾.

셋째, 비례미에 있어 저고리의 길이가 치마에 비해 적은 비율을 지니는 것은 인체와 의복간의 상호연관적인 비례관계를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미적구성과 단순, 소박한 복식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저고리의 각 세부형태 등에서 황금비례에 가까운 비례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비례미가 비정체성을 지니면서도 체형을 보완시키는 착시효과를 지니므로 항상 이상적인 조화와 통일을 추구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조선일보사, pp. 249-251, 1994.

6) 김인향,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6-98, 1996.

4)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pp. 24-25, 1995.

3. 색채적 특성

전통복의 색은 금제항목 중 하나로 의복착용에 있어 비교적 제재가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고유한 색의 근간을 이루는 배경을 살펴보면, 의복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색들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된다. 무채색은 흰색과 회색, 흑색이며, 유채색은 음양오행사상의 적, 청, 황을 위시한 여러 색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이라 불릴 만큼 백의를 좋아하였는데⁷⁾, 이러한 백의는 삼국시대부터 문헌을 통하여 그 착용을 알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했던 백저포의 사용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실제의 백의 착용이 사회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에 의한 엄격한 상례시행에 따른 대가족제도로 인하여 상복(喪服)인 백의착용을 일상화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백(白)은 단군신화에서부터 비롯되어 태백에서 나온 것으로 태양과 같은 밝음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 산이름에 '백'자를 사용하는 것¹⁰⁾ 역시 태양을 신으로 하는 제천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백의숭상의 이유로는 첫째, 풍토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에 가장 영합하는 색의 기호라 볼 수 있다. 둘째, 의복재료면에서 자연 그대로의 이용이라는 편의주의의 측면에서 자연색에 연유하였던 것으로 본다. 이는, 麻, 紵, 木棉의 가공되지 않은 素色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우선 시간적, 육체적 및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편리하였기 때문¹¹⁾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무채색 중심의 사용은 주로 일상복이나 서민복에서 애용되었고, 격식을 차린 복식이나 상류계층의 복식에서는 유채색을 사용하여 색채의

이분적 경향이 나타났다. 유채색의 정착은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해 청, 백, 황, 적, 흑의 오방색의 영향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물을 상징하는 흑색, 금속을 상징하는 백색, 불을 상징하는 적색, 나무를 상징하는 청색, 흙을 상징하는 황색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의생활에 반영한 것이다. 이 색상들은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와 염료를 생산하는 풍토에 따라 색채의 농담이 형성되어 우리 민족의 기호를 살렸는데, 특히 백의와 적절히 조화되어 사용된 색의 예를 들면 남자의 심의(深衣)의 선(襖)장식과 여자 원삼 안감의 선장식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자의 의복인 심의의 경우는 양(陽)을 상징하는 백색바탕에 음인 흑색의 선장식을 볼 수 있으며, 여자의 의복인 원삼의 안감에서는 음(陰)을 상징하는 홍색 바탕에 양(陽)인 남색의 선장식을 볼 수 있다.

오방색을 정색이라 하며 두 정색을 혼합한 색을 벽(碧), 녹(綠), 류(靑), 자(紫), 홍(紅) 등을 간색(間色)으로 구분¹²⁾하는데 특히 간색을 정색과 함께 사용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전통색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노랑도 셋노랑이 아닌 송회색이며, 홍색도 연하게 변화된 분홍이고, 청색도 옥색이 주로 쓰였다. 이는 은근한 담조미(淡調美)를 즐겨 찾던 우리 민족의 색채적 특징인 것이다.

아울러 전통복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보색의 배색으로 된 색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원삼이나 어린이 의복에 있어서 색동소매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어린이 의복 중 까치 두루마기나 오방장 두루마기 등에서 흑색을 제외한 정색과 간색이 혼합된 색동의 조화는 길상의 의미¹³⁾이며 한국인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전통복의 색사용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서와 음양사상, 오행설 등이 깃들여져 있으므로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7)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p. 345, 1987.

8) 국역 고려도경, 고전국역총서 1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p. 69-123, 1977

9) 조우현,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13, 1989.

10) 장인우, "조선중기 일상복에 관한 색상연구(I)", 복식 41호, p. 51, 1998.

11) 김영숙, "한국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5-36, 1988.

12) 星湖僊說, 卷2, 萬物間彩色

13) 신화진, "아동복에 나타난 색과 문헌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p. 99, 1997.

III. 생활한복에 반영된 전통한복의 미적특성

전통한복의 미적가치는 구성방식상의 여유로움, 특유의 결속양식, 트임의 활용, 그리고 평면재단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형적 측면에서는 항아리형 실루엣을 갖는 형태미, 구조상의 비대칭적 균형, 깃과 쏘 등의 세부형태에서 나타나는 비례미로 인하여 안정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색채의 측면은 무채색과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한 오방색의 독특한 색감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생활한복은 전통한복을 기본으로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서양복의 요소를 차용한 것이므로 현재 시판중인 생활한복에 전통한복의 미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적 측면에서 전통형을 바탕으로 여유를 두어 구성함으로써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전통한복의 특유의 형태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역시 첫수에 있어 서양복과 달리 치수구분의 범위가 넓어 약간의 치수차이와 상관없이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결속양식에서도 전통형식을 바탕으로 현대생활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고름의 형태를 짧게 한다거나 서양식 결속양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재단방법에 있어서도 평면재단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서양복재단 방법을 도입한 것은 한국인의 좌식생활환경과 인체를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통한복의 형태미에 주안점을 둔 들러입는 방식의 랩스커트나 풍성한 주름을 응용한 개더스커트의 치마형태에서 나타나며, 대님을 장식형태로 고정시켜 유지되는 바지의 풍성한 형태에서도 표현된다.

또한 세부적으로 전통한복의 쏘, 고름, 겹마기, V형의 목선 등과 같은 구조를 부분적으로 변형·적용함으로써 비대칭 균형과 상호연관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는 일반적으로 전통색채의 오방색을 중심으로 하여 채도, 명도를 변화시킨 다양한 색조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실증적 연구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1997년 6월 1일에서부터 1997년 7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본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 30, 40, 50대 남·여 가운데 학생, 주부, 공무원, 회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중에서 863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835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연령은 20대부터 50대로 한정하였다. 직업면에서도 생활한복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학생 및 주부, 회사원과 특히 한복차용을 권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학력과 월수입에 따라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활한복에 관한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으로는 크게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와 디자인 선호도조사로 분리하여 작성하였다. <표 2-1>은 전통한복과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특성	통계치	백분율(%)
연 령	20대	27.7%
	30대	23.0%
	40대	25.9%
	50대	23.4%
직 업	학생	21.0%
	공무원	19.8%
	회사원	38.4%
	주부	20.8%
학 력	초·중졸	3.9%
	고졸	32.1%
	대재 및 대졸	51.0%
	대학원이상	13.0%
월수입	100만원미만	24.4%
	100~200미만	35.3%
	200~300미만	25.1%
	300만원이상	15.2%

<표 2-1> 측정도구의 구성내용-의식조사

- 1)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 (1) 전통한복
 ① 소유량
 ② 불착용이유
- (2) 생활한복
 ① 소유량
 ② 희망소유량
 ③ 착용용도
 ④ 착용자 이미지

<표 2-2> 측정도구의 구성내용-디자인 선호도 조사

- 2)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
- (1) 형태
- ① 남자
- | | |
|-----------------|-----------------|
| A. 저고리 | B. 바지 |
| a. 길이 | a. 폭 |
| b. 소매폭 | b. 대님 |
| c. 고름과 동정 | c. 허리끈 |
| d.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 d.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
- ② 여자
- | | |
|-----------------|-----------------|
| A. 저고리 | B. 치마 |
| a. 길이 | a. 길이 |
| b. 폭 | b. 치마끈 |
| c. 소매폭 | c.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
| d. 고름과 동정 | |
| e.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 | |
- (2) 소재 및 재질
- ① 소재
 ② 재질
- (3) 색상
- ① 선호색상
 ② 색상에서 오는 느낌
 ③ 염색상태
 ④ 배색선호도 I
 ⑤ 배색선호도 II
- (4) 문양
- ① 문양의 유무
 ② 문양형태
 ③ 삽입방식
 ④ 배치상태

생활한복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한복에서의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됨으로써 생활한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어 구성하였다.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것은 <표 2-2>에 정리하였다. 디자인 구성요소 중 형태, 소재 및 재질, 색상, 문양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먼저 형태에 있어서는 남·여의 상의·하의별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의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의견을 살펴보려 하였다. 소재 및 재질에 대해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서양소재의 혼용이나 전통소재의 대체품개발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색상에 있어서는 여러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려 하였고, 문양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도 조사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V. 결과분석

1.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

생활한복에 관한 의식조사를 위해 전통한복 소유량, 전통한복착用に 따른 불편사항, 생활한복의 소유량과 희망소유량, 착용용도, 착용자이미지를 내용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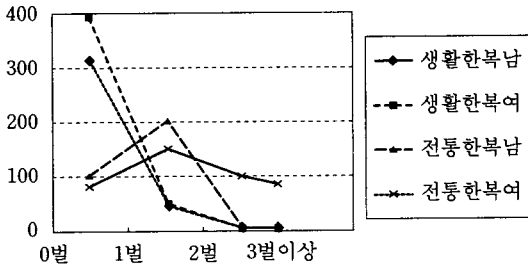
먼저 전통한복 소유량에 있어서는 남·여가 대부분 1벌씩 소유하였으며, 연령이 많아지면서 소비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생활한복 디자인을 위해 조사된 전통한복의 불편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활동에 불편하여 입기를 망설인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입는 격식이 까다롭고 착용후 손질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전통한복 중상의 품이나 길이 등에서 활동성과 기능성이 요구되는 현대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한복의 소유량에서는 1벌 이상 소유한 응답자 중 남자는 30대 15%, 40대 25%, 50대 21%, 여자는 50대에서 17%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착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보여지나, 앞으로의 소유가능성에

어 적어도 1벌 이상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소유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착용용도로는 주로 평상시나 명절에 가장 많이 착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제사나 행사참가시에 착용한다는 빈도수가 비교적 높게 파악되었다. 생활한복 착용자의 첫인상에서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 것으로 보이며, 첫인상은 좋으나 입기에는 망설여진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게 분석결과에 따라 현대적 감각을 적용하여 미적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 전통한복과 생활한복의 소유량비교



2.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

생활한복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위해 생활한복의 형태별 선호도, 소재, 색상, 문양, 여밈방식을 내용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1) 형태

①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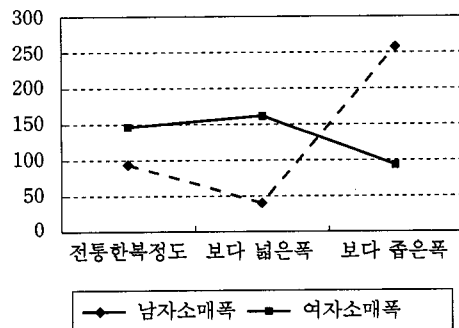
생활한복 저고리에 있어서 전통한복에 비해 길이는 조금 짧은 것이 활동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매폭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전통형보다 좁게 되기를 원했고 넓게 되기를 원하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대 47%, 30대 48%로 필요없다고 답하였으나 40대와 50대는 각각 59%, 58%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장식이 절제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퍼나 단추 등의 서양복 요소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바지의 경우도 모든 연령층에서 활동에 편리하게 폭을 줄이며 여밈방식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생각했던 허리끈이나 대넒의 결속물의 사용에 대해 경우에 따라 필요하거나 필요 없다는 의견이 20대 50%, 30대 52%, 40대 56%, 50대 58%로 나타나 착용시 좀 더 용이하도록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생활한복 디자인에 따라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은 배제시켜도 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기존상품에 대한 의견에서는 허리를 고무줄로 처리하고 바지부리 역시 미리 주름을 잡음으로써 착용시 편리함을 고려한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② 여자

생활한복 저고리에 있어 20대 48%가 전통한복 보다 20cm 긴 길이(허리선정도)를 선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통한복에 비하여 10cm정도 긴(가슴밑선정도)길이를 원했으므로 전통한복의 짧은 길이는 팔동작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전체적인 활동을 부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저고리 품은 약간의 여유가 남는 정도를 선호했으며, 소매폭은 남성과 달리 20, 30대는 각각 51%, 61%가 전통형이나 좀 더 넓은 것을 선호하였으며, 40, 50대는 각각 45%, 47%로 전통한복 정도의 소매폭을 선호하였다.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불필요하며 대체여부에 대해서 20대 56%, 30대 60%, 40대 69%, 50대 40%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디자인에 따라 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존상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기능성위주로 변화를 시도한 것 보다 여성적인 실루엣을 중시하였

〈표 4〉 남·여 선호소매폭비교



다. 치마의 경우 길이에 있어서 발목과 무릎중간 정도인 길이 즉, 전통치마 길이 보다 약 20cm정도 짧은 정도를 가장 선호하여 보행시 편하도록 개체할 수 있는 길이로 생각되며, 치마끈 보다는 단추나 지퍼로 대체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양복의 세부장식을 접합시켜 활동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선호되고 있는 기존상품에 대한 의견은 여성적 실루엣을 갖으면서 약간의 변화를 준 전통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소재 및 재질

생활한복 소재선호경향은 계절구분 없이 4계절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소재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20대는 명주, 30, 40, 50대는 삼베와 모시를 여자는 20, 30, 50대가 삼베 및 모시를 선호하였고, 소재느낌은 부드러운 것을 원했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실용성에만 초점을 맞춘 바랜듯한 염색상태의 두꺼운 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앞으로 전통소재의 현대화 연구 내지는 서양복소재와의 혼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재와 그에 따른 재질 역시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현대감각을 살려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색상

남자는 1. 푸른색계열, 2. 갈색계열, 3. 검은색 및 회색계열, 여자는 1. 푸른색계열, 2. 붉은색계열, 3. 초록색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색상에서 오는 느낌으로는 남·여 모든 연령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pale tone의 색상을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남·여 20대에서 가벼운 색을, 연령이 많아질수록 짙고 중후한 색을 선호하였다. 배색경향은 남자는 짙은색 저고리에 옅은색 바지를 여자는 옅은색 저고리에 짙은색 치마를 선호하였다. 색상선택과 배색에 있어 현대인의 의식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염색상태 역시 실용성만을 고려하여 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면서 현대감각을 지닌 염법의 적절한 적용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4) 문양

남·여 모두 문양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그중 남성은 상의에만 여성은 하의에만 배치시키기를 원했다. 또한 문양의 형태로는 남자의 경우 20대는 기하학적 문양, 30대는 십장생 등 동물문양, 40, 50대는 꽃문양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모든 연령에서 꽃문양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양은 모든 연령층에서 자수방식을 통하여 삽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양이 있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결과에 근거하여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문양개발과 문양형태, 형태에 따른 삽입방식, 배치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극 활용한다면 생활한복에 색다른 미적 특성이 부여되리라 사료된다.

VI.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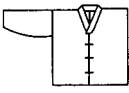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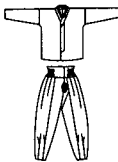

설문분석결과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각각 봄·가을용, 여름용, 겨울용으로 나누어 3벌씩 디자인·제작하였으며, 특히 선호되고 있는 기존상품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율이 비교적 높은 상품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선택함으로써 디자인개발시 참고자료로 반영하였다. 결과에 따른 디자인의도는 다음과 같다.

VII.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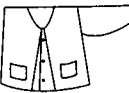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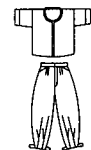

1. 전통한복의 미적특성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은 여유를 두어 짓는 구성방식, 평면재단을 통한 재단방식, 싸는 듯한 형식의 착용방식에서 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조형적 특성으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형태미, 균형미, 비례미를 들 수 있다. 색채에 있어서는 백색을 포함한 무채색이 주를 이루었고, 또한 음양사상과 오행설이 깃들여져 있는 유채색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를 담은 색채사용이 이루어졌다.

2.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소유량에 있어 전통한복은 남·여가 대부분 1벌씩 소유하였으나, 활동하기에 불편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착용이 되지 않아 주로 의뢰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생활한복을 소유한 경우는 소수였으나 희망소유량은 적어도 1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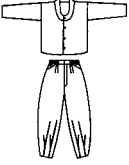

1. 남자 봄 · 가을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보다 조금 짧게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소매폭 역시 전통형보다 좁게하여 편의성을 보완하였다. 깃과 동정의 사용은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고름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폭은 전통형보다 좁게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결속양식에 대한 편의성의 요구에 따라 서양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능성을 고려하였고, 부리도 대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위해 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소재 및 재질	<p>명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사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 물명주(명주느낌,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함)사용</p>	<p>상의와 동일</p>
색상	<p>푸른색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푸른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p>	<p>푸른색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푸른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p>
문양	<p>기하학무늬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소재자체가 기하학적 자연스런 주름형태를 유지</p>	<p>상의와 동일</p>
작품 사진	<p>도식화 </p>	<p>작품 사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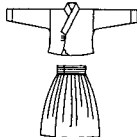

2. 남자 여름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보다 조금 짧게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소매도 여름용을 고려하여 반소매에 컷프스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깃 역시 여름용을 고려하여 깃을 없애고 라운드네크라인으로 변형하였다. 고름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폭은 전통형보다 좁게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결속양식에 대한 편의성의 요구에 따라 서양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부리도 대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위해 단추로 대체하여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소재 및 재질	<p>삼베 및 모시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레이온(재생섬유)을 사용, 삼베와 비슷한 조직으로 청량감을 지니고, 또한 구김으로 인한 착용시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 세탁시 편리함을 부여함</p>	<p>상의와 동일</p>
색상	<p>갈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갈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p>	<p>갈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갈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p>
문양	<p>기하학적 무늬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기하학적인 느낌있는 소재를 이용함</p>	<p>상의와 동일</p>
작품 사진	<p>도식화 </p>	<p>작품 사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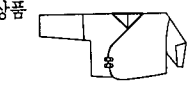

3. 남자 겨울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으로 하고, 소매폭은 전통형보다 좁게, 직배래로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다. 깃은 현대적이미지를 부여하여 둥글게하면서 모직물두께를 고려, 동정을 없앴다. 고름은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폭은 전통형보다 좁게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결속양식에 대한 편의성의 요구에 따라 서양적 요소를 도입하고, 주머니를 제작함으로써 기능성을 높였다. 부리도 대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위해 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소재 및 재질	서양복소재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보온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서양복소재인 모직물사용	상의와 동일
색상	회색 및 검은색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회색계열, 짙잡고 중후한 분위기, 짙은톤사용	회색 및 검은색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회색계열, 짙잡고 중후한 분위기, 짙은톤사용
문양	줄무늬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소재자체에 조직상의 색의 차이로 인한 줄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	상의와 동일
작품사진	<p>도식화 </p>	<p>작품사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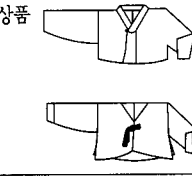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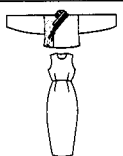

4. 여자 봄·가을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보다 10cm 길게 하고, 소매 폭은 전통형보다 좁게, 직배래로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고, 심미성을 고려하여 깃은 넓게 목부분이 감싸지도록 하고 색선으로 구분하였다. 고름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매듭단추로 대체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무릎과 발목 중간정도로 하고, 폭은 전통형보다 좁게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으며, 착용방식은 랩 스커트형으로 하였다. 허리부분은 심미성을 고려하여 넓게 처리하여 누비고, 결속양식은 매듭단추를 대체사용함.</p> <p>선호되고 있는 기존 상품 </p>
소재 및 재질	명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산탄(명주느낌,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함)사용	상의와 동일
색상	초록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초록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	초록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초록색계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 짙은톤사용
문양	꽃문양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자수방식을 이용한 꽃문양을 선풍부분 모서리에 적용	꽃문양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자수방식으로 치마모서리에 적용하여 조화이름
작품사진	<p>도식화 </p>	<p>작품사진 </p>

5. 여자 여름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보다 20cm 길게 하고, 프린세스라인의 다투처리로 형태변형을 시도하였고, 소매는 여름용이므로 반소매로 하였다. 깃은 V넥라인을 유지하면서 서양식 칼라형으로 하였다. 고름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매듭단추로 대체함.</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여름용을 감안하여 무릎길 이로 하고, 폭은 구김과 볼륨감을 갖는 소재특성을 고려 하여 좁게 하면서 옆트임을 하여 활동성을 보완하였다. 허리부분의 결속양식은 단추로 대체함.</p>
소재 및 재질	<p>모시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모시사용</p>	<p>상의와 동일</p>
색상	<p>붉은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붉은색계열, 밝고 가벼운 분위기, 열은튼사용</p>	<p>붉은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붉은색계열, 밝고 가벼운 분위기, 질은튼사용</p>
문양	<p>기하학적무늬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소재자체가 움직일 때마다 기하학적인 느낌이 있는 소재사용</p>	<p>상의와 동일</p>
작품사진	<p>도식화 </p>	<p>작품사진 </p>

6. 여자 겨울용

디자인 요소	디자인 의도	
	상의	하의
형태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전통형보다 10cm 길게 하고, 소매폭은 전통형보다 좁으면서 직배래로 하여 기능성을 보완하였다. 깃은 당코깃으로 하여 심미성을 고려하였고, 고름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짧고 좁게 제작·사용함</p>	<p>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길이는 발목길이로 하고, 여유있는 원피스형태로 가슴조임을 없애주어 기능성을 보완하였고, 항아리형 실루엣을 지니게 하였다. 폭은 좁게하고, 뒷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고려하였고, 결속양식은 지퍼로 대체함.</p>
소재 및 재질	<p>명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산탄(명주느낌,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함) 사용하면서, 길부분에 누비선호를 고려하여 적용</p>	<p>명주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산탄(명주느낌,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함) 사용</p>
색상	<p>푸른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푸른색계열, 부드럽고 은화한 분위기, 열은튼사용</p>	<p>푸른색계열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푸른색계열, 부드럽고 은화한 분위기, 질은튼사용</p>
문양	<p>도식화 </p>	<p>작품사진 </p>
작품사진	<p>도식화 </p>	<p>작품사진 </p>

상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소유가능성도 높았으며 주로 평상시나 명절에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한복 보다는 그 용도의 범위가 넓었다. 또한 생활한복 착용자이미지에서 특수직업 종사자처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단점을 보완하는 등 미적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생활한복의 디자인선호도 조사에 있어 남성은 전통한복에 비해 변화를 원했으나 여성들은 전통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남·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태

① 남성

상의의 길이는 전통한복에 비해 짧게, 소매폭 역시 좁게 되기를 원했고,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불필요하며 결속양식을 서양복 요소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하의도 폭을 줄이며 허리끈이나 대님의 결속물의 사용에 대해 착용시 용이하도록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현대인들에게는 고유한 형태보다 좀 더 실용성이 반영되어 활동에 불편이 없기를 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② 여자

상의의 길이는 전통한복 보다 10cm정도 긴(가슴 밑선정도)길이를 원했고, 품은 약간의 여유가 남는 정도를 선호했으며, 소매폭은 전통형이나 좀 더 넓은 것을 선호하였다. 세부장식인 동정, 고름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불필요하며 대체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하의는 길이에 있어서 발목과 무릎중간 정도인 길이 즉, 전통치마 길이 보다 약 20cm정도 짧은 정도를 선호하였고 치마끈 보다는 단추나 지퍼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여성들은 형태에 있어 전통미를 유지하면서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2) 소재 및 재질

재질구분 없이 남·여 모두 삼베와 모시, 명주를 선호하였고 소재느낌은 부드러운 것을 원했으며 또한 시판되고 있는 바랜듯한 염색상태의 두꺼운 면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앞으로 전통소재의 현대화 연구 및

서양복소재와의 혼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선호소재가 위와 같으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생활경향을 반영하여 삼베, 모시, 산탄의 소재느낌이 나는 서양복 소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소재와 그에 따른 재질 역시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현대 감각을 살려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색상

남성은 1. 푸른색계열, 2. 갈색계열, 3. 검은색 및 회색계열, 여성은 1. 푸른색계열, 2. 붉은색계열, 3. 초록색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색경향은 남성은 짙은색 저고리에 옅은 색바지를 여성은 옅은색 저고리에 짙은색 치마를 선호하였다. 색상선택과 배색에 있어 현대인의 의식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염색상태 역시 실용성만을 고려하여 미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면서 현대감각을 지닌 염법의 적절한 적용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4) 문양

남·여 모두 문양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는데 그중 남성은 상의에만 여성은 하의에만 배치시키기를 원했다. 또한 문양의 형태로는 꽃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을 선호하였다. 문양이 있는 것을 다수가 선호하는 결과에 맞추어 전통문양의 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문양개발과 문양형태, 형태에 따른 삼입방식, 배치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극 활용한다면 생활한복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VII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서울지역에 한정되어 국민의식을 대표하는 분석자료로써 부족한 사항이 다소 있어 앞으로는 전국을 세분화하여 국민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생활한복에 대한 더 세밀한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간주된다.

전통에 대한 중요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복식에 대한 중요성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며, 전통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주지시켜 우리의 의생활문화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옛 것의 재현만으로 전통복식의 현대적 계승이 실행될 수 없으므로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복식의 미적가치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비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상품을 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생활한복의 디자인은 전통한복의 미적특성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운 구조, 특유의 결속양식, 포용성에 의한 향아리형 실루엣, 선의 율동미 등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도록 심미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기능성을 위한 부분적 디자인변형, 활동성을 위한 서양식 재단방식의 부분적 도입, 편의성을 위한 착장 후 관리측면보강 등의 시도로 인하여 현대인의 생활에 접근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급한 과제는 생활한복의 대중화와 수요확대를 위하여 중저가 소재, 물세탁이 가능하며, 관리에 있어 부담없는 소재, 이와 동시에 우리의 멋을 살릴 수 있는 소재사용은 생활한복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전통복을 연구하는 의류학전공자들의 상호교류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승의 80년사 편찬위원회, 「승의80년사」, 학교법인승의학원, 1983
- 제국신문, 1905. 6. 19, 논설
- 동아원색대백과, 2권
- 동아일보, 1933. 10. 2, 「조선사람의 흰 옷이 얼마나 불경제인가」
- 황성신문, 1909. 9. 30.
- 대한민보, 1909. 9. 30.
- 김진식, 「한국양복 100년사」, 한국양복기술경영협회, 서울 미리내, 1990.
- 동아일보, 1921. 184호.
- 매일신보, 1938. 7. 24.
- 매일신보, 1941. 9. 2.
- 매일신보, 1943. 8. 19.
- 경향신문, 1957. 7. 14.
- 여원, 1959. 2, 화보「여대생들이 구상한 농어촌 개량복」
- 여원, 1961. 8, 화보「거리에 나선 신생활복」
- 남윤숙, “한국 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이경자, 「한국복식사론」, 1983.
-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 이후 여자한복을 중심으로”, 복식 15호, 1990, 서명자, “현대 한복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1995.
-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밀알, 1994.
- 백영자, 「한국복식」,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